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Vol.56, No.8 (Nov. 2006) pp.1-14

중국 향낭의 유형과 특성

이 주 영* · 이 경 희** · 권 영 숙***
동명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전임강사* · 부산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 · 부산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Chinese Hyangnang

Joo-Young Lee* · Kyung-Hee Lee** · Young-Suk Kwon***
Full-time Instructor, Dept. of Fashion Design, Tong Myong University*
Doctoral Course, Dept. of Clothing & Textiles, Pusan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Pusan National University***
(2006. 2. 15 투고)

ABSTRACT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Hyangnag used in China. Results of the study can be described as below.

1. Hyangnang was also called Hyangdae, Hyanghapo, Hunnang and Chunnang. Perfumes were used to make the body and clothes diffuse a good fragrance. And Perfumes were used to prevent insects and remove related pollutions. It was possible to prevent insects when perfumes were burnt out.
2. In the Han, Song, Yao and Win periods, Hyangnang had Cylinderical, Rectangular, Cylinderical and Rectangular, Circular and Calabach types. These various types were developed into one, Norigae type, in the period of Ching.
3. Hyangnang were decorated mainly with embroideries, knots and seams. Embroideries were applied always onto the surface of Hyangnang. Knots were used mainly in the Song and Win periods, decorative seams were used mainly in the Ching.
4. From the Han to Yao periods, Hyangnang was made of perforate textiles like Ra and Sa for practical reasons, making perfume smells more easily diffused. From the Win to Ching periods, Hyangang was made of dense textiles like silk and Dan, which could be easily embroidered for decoration purposes.
5. Hyangnang was often hanged down from the waistband and up onto the fore chest or the elbow, or put into the liner of the sleeve.
6. Hyangnang has immanent implications of symbolism, ideology and aristocraticism.

Key words: China(중국), Hyangnang(향낭), types classification(유형분류), external characteristics (외적특성), internal characteristics(내적특성)

corresponding author: Joo-Young Lee, e-mail: joojoo68@hanmail.net
* 본 연구는 한국과학재단의 특정기초(R01-2003-000-10276-0)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Ⅰ. 서언

고대 중국 사람들은 허리에 늘어뜨리는 장식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여 1개의 腰帶 위에 많은 장식품을 늘어뜨렸는데 이를 腰佩라고 하였다. 요패는 장식품에 따라 크게 玉佩와 事佩로 분류된다. 옥패는 德佩라고도 하는데 실용적인 가치는 없고 오직 장식으로만 사용된 것을 말하며, 玉璧, 玉璜, 衝牙 등의 장식품이 이에 속한다. 사패는 실용적인 가치 뿐만 아니라 장식으로도 사용된 것을 말하며, 荷包, 香囊, 巾帨[수건], 玉觿[뿔송곳] 등의 실용품이 이에 속한다.[1]

이상의 요패 가운데 특히 많이 사용된 것은 사패에 해당하는 하포와 향낭, 즉 주머니였다. 왜냐하면 고대 중국 의복에는 주머니가 없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작은 물건들을 담기 위한 주머니가 반드시 필요하였다. 이러한 이유에서 주머니는 고대 이래 서양의복이 도입되기 전까지 평상시 혹은 외출시에 즐겨 사용되었던 생활소품이었으며, 본래의 실용성에 장식성과 상징성이 더해지면서 중요한 장식품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본 논문은 중국 고대에 사용된 주머니 가운데 향료를 담는 데 사용되었던 향낭에 관하여 연구한 것이다. 즉 최근 향료가 섬유류 유물의 보존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성과에 주목하여 향료에 관한 연구의 시작으로서 향료를 담았던 향낭에 관하여 복식사적 관점에서 연구하고자 한다. 현존하는 향낭유물을 보면 중국의 경우 유물수가 적기는 하지만 漢代부터 淸代까지 시대별로 연속적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현존하는 最古의 유물이 월정사 팔각구층석탑에서 나온 10세기경의 것으로 추정되는 繡羅향낭이고,[2] 이후 고려시대에 아미타불복장물에서 나온 향낭으로 추정되는 5점의 주머니가 있는데[3] 이들을 연결선상에 놓고 이해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사용된 향낭을 고찰하기 위한 선행연구로서 유물이 연속적으로 남아 있는 중국의 향낭에 관하여 연구한 것이다. 먼저 향료의 용도와 향낭의 개념과 기원을 알아본 다음 중국에서 사용된 향낭의 유형을 재료와 형태에 따라 분류하고, 향낭의 특성을 시대별 유형분포, 장식기법, 재료, 착용부위 등의 외적 특성과 향낭에 내재되어 있는 상징성, 사상성 등의 내적 특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Ⅱ. 향료의 용도와 향낭의 개념

1. 향료의 용도

향료는 중국이 실크로드를 통해 서역과의 교통을 시작하면서 西인도로부터 수입되었다.[4] 향료는 방향, 방충, 정화, 약용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즉 향료를 몸에 지니면 몸에서 좋은 향기를 낼 수 있고, 벌레와 오염을 제거할 수 있고, 주변을 정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정신을 맑게 할 수 있어서 남녀노소가 모두 향료 지니기를 좋아하였다.[5] 향료는 특히 부녀자들에게 애용되었으며, 복식분야에서는 주로 방향, 방충의 용도로 사용되었다.

1) 방향의 용도

향료는 몸과 의복에서 좋은 향기를 발산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향기를 내기 위한 직접적인 방법은 향료로 목욕하는 것이고, 간접적인 방법은 향료를 그냥 향낭 속에 담거나 향료를 불에 태워 香毬 속에 담아 몸에 패용함으로써 향냄새가 몸과 의복에 스며들게 하는 것이다.

또한 향료는 생활공간의 향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도 사용되었다. 즉 잠잘 때 향료를 향구에 담아 이불 위에 놓아두거나 향낭을 휘장의 네 모서리에 주렁주렁 늘어뜨렸으며,[6] 심지어는 황실 후궁이 거주하는 거실의 벽에 향료를 배합한 흙을 발라[7] 방안 가득히 향냄새가 퍼지도록 하였다.

2) 방충의 용도

향료는 벌레를 쫓고 오염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향료는 그 자체만으로도 방충의 효과가 있지만, 향료를 불에 태워 향구, 熏爐, 博山爐 등의

훈향기에 넣고 연기를 뿜어냄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벌레을 쫓고 오염을 제거할 수 있었다. 향구는 크기가 작아 몸에 패용할 수 있는데 반해 훈로와 박산로는 비교적 큰 형태로 오직 실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향료의 방충성은 유물을 보존하는데 매우 효과적이었다. 즉 의복, 책, 생활용품 등을 향료와 함께 두면 벌레의 피해를 입지 않고 장기간 보존될 수 있었다. 宋樂史 ≪楊太眞外傳≫에 "이장을 하여 묻어주었더니 貴妃의 살결은 이미 오간 데가 없네. 가슴에는 어찌 천으로 된 향낭만 있을 뿐인가"[8]라는 내용이 있는데 모든 것이 썩어 없어진 상태에서 향낭만 남을 수 있었던 것은 향낭 속의 향료가 섬유류 유물에 있어서 방충제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2. 향낭의 개념

중국 古文獻에 표현된 주머니를 지칭하는 용어에는 荷囊, 聲囊, 荷包, 香囊 등이 있다.

이 중 하낭, 격낭, 하포를 보면, 하낭과 격낭은 모두 하포의 前身으로서 작은 물건을 넣기 위한 小袋를 말하는데, 피혁으로 만든 하낭을 특별히 격낭이라고 하였다.[9] 하낭과 격낭은 송대 이후 통칭 하포라고 불리었으며, 하포라는 명칭은 청대까지 일반적인 주머니를 지칭하는 용어로 널리 사용되었다.[10] 하낭, 격낭, 하포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잡다한 물건, 즉 손수건, 바늘, 실, 도장, 화폐 등을 담는 주머니를 말한다. 그런데 주머니를 지칭하는 용어 중 향낭은 하낭, 격낭, 하포와 달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건들 가운데 특별히 향료를 담는 주머니를 말한다.

중국의 고문헌을 보면 향낭은 香袋, 薰囊, 香荷包, 春囊 등으로도 불리었다.

향대는 향료를 담는 자루라는 의미이다. '袋'자가 자루, 부대라는 뜻이므로 자루모양으로 생긴 향주머니를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한다.

훈낭은 薰草를 담는 주머니라는 의미이다. 훈초는 몸에 지니는 香草로서 약칭 薰이라고 하는데 몸에 지니면 해충과 악취를 제거하고 주변을 정화하고 돌림병을 막을 수 있었다고 한다.[11] 여성들이 오랫동안 몸에 지닌 향료는 식물이 주였고 그 중에서도 가장 귀중한 香草는 '薰 '또는 '蕙草'라고 불리었는데, 몸에 지니는 향료를 총칭해서 薰이라고 부르게 되면서 향낭은 훈낭이라고도 불리게 되었던 것이다.[12] 한편, 長沙馬王堆1호 漢墓에서 부장품의 목록을 기록한 죽간이 출토되었는데 죽간에 훈낭이라는 명칭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훈당은 漢代에 사용되었던 향낭의 별칭이라고 생각된다.

향하포는 향료를 담는 하포라는 의미이다. 이는 향낭으로부터 변화·발전된 것으로 하포라는 명칭이 보편화되었던 청대에 주로 사용된 용어이다.

춘낭은 향낭의 표면에 '봄의 뜻'을 의미하는 문양이 수놓아진 향낭을 말한다. 봄의 뜻을 의미하는 문양에는 활짝 핀 연꽃, 한 쌍의 날아가는 제비, 서로 목을 기대고 있는 원앙, 알몸으로 서로 껴안고 있는 남녀의 모습 등이 있다.[13]

한편, 이상의 향대, 향하포, 훈낭, 춘낭은 주로 직물로 만든 것인데 고대에는 직물이 아닌 금속으로 만든 향낭도 있었다. 대표적인 금속향낭은 향구이다. 향구 역시 의복에 향을 내기 위하여 몸에 착용한 것으로 그 외형이 작은 공모양이라는 점에서 香毬라고 불리었으며, 香球, 衮球, 薰球라고도 하였다.[14]

향낭을 몸에 지니는 풍습은 周代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즉 ≪禮記·內則≫에 "남녀 중 관과 비녀를 꽂지 않은 자는 모두 容臭를 허리에 찬다"[15]라는 기록이 있다. 이에 대하여 漢의 鄭玄이 "용취는 香物이다. 이것을 갓끈에 달았다"고 主하였고, 唐의 孔穎達이 "臭는 냄새이다. 냄새나는 물건을 容이라고 한다...냄새나는 물건으로 장식할 수 있으니 고로 容臭이다"라고 하였다.[16] ≪예기≫의 기록연대가 주대 이전으로 추정되므로[17] 향료를 사용하는 풍습 역시 주대 이전에 이미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당시에는 몸에 지니는 향기로운 물건을 향낭이라 하지 않고 용취라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향낭이라는 명칭이 정식으로 사용되는 시기는 漢·魏시기이다. 이는 漢代의 ≪공작 동남비≫에 "紅羅는 斗帳을 뒤집고 네 모퉁이에 향낭을 늘어뜨린다"는 기록과 魏代의 ≪정정시≫에 "누가 똑똑

두드립니까. 향낭을 팔꿈치 뒤에 묶어주세요"라는 기록으로 확인된다. 그런데 용취와 향낭의 관계에 대하여 明代의 ≪稗林雜俎≫에 "왼쪽에는 칼을 차고 오른쪽에는 容臭를 차고 있었다. 그 찬란함이 신선 같았다. 또한 香囊이라고도 한다"는 기록이 있고, 淸代의 ≪事物異名錄≫에 " ≪예기≫에 '용취를 허리에 찬다'라는 주에 '향불이다'라고 되어 있다. 이것은 후세의 香囊이다"라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향낭이 용취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향낭은 향료를 담는 주머니로서, 향대, 향하포, 훈낭, 춘낭 등으로 불리었으며, 특별히 금속으로 만든 향냥을 향구라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향낭을 몸에 지니는 풍습은 주대 이전에 이미 있었으나 당시에는 향낭을 용취라고 하였으며, 한·위시기에 향낭이라는 용어가 정식으로 사용되면서 명대까지 용취와 향낭이 함께 사용되다가 청대에 이르러 향낭이 보편적으로 널리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Ⅲ. 향낭의 유형과 특성

1. 향낭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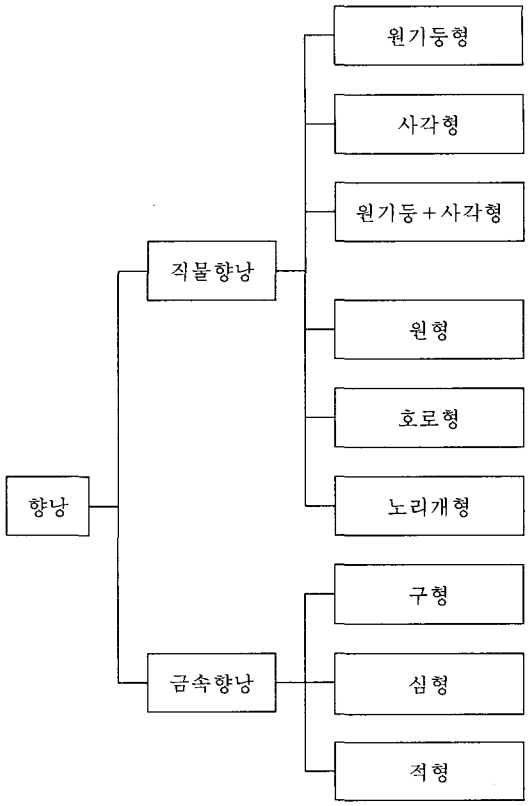
향낭의 유형을 고찰하기 위한 실증자료는 고찰 가능한 유물자료 16점, 회화자료 2점으로 총 18점이다. 자료의 고찰은 도록과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간접 고찰하였다.

향낭의 유형은 사용된 재료에 따라 직물향낭과 금속향낭으로 분류되고, 형태에 따라 다시 직물향낭은 원기둥형, 사각형, 원기둥+사각형, 원형, 호로형, 노리개형 등으로 분류되고, 금속향낭은 球形(공모양), 心形(하트모양), 滴形(떨어지는 물방울모양) 등으로 분류된다. 중국 향낭의 유형을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고, 이에 기초하여 향낭의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직물향낭

(1) 원기둥형

원기둥형은 향낭의 외형이 원기둥모양으로 된 유형이며, 입체적이다. 이 유형은 漢代의 유물과 唐代의 회화에서 확인된다(그림 2, 3, 4).



〈그림 1〉 중국 향낭의 유형분류

〈그림 2〉는 新疆에서 출토된 한대의 향낭이다.[18] 표면에 花紋과 點紋이 정교하게 수놓아져 있고, 안에 망사조직으로 된 주머니가 하나 더 들어 있는데 망사주머니 안에 향료를 넣은 것이 아닌가 한다. 위 가장자리에는 자수를 하지 않아 끈을 넣어 쉽게 조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2〉와 같은 원기둥모양의 향낭은 〈그림 3, 4〉의 회화자료에서도 볼 수 있다. 〈그림 3〉은 唐墓 벽화에 그려진 남자 시종인 召使의 모습으로 왼쪽 허리에 향낭을 차고 있다.[19] 향낭의 위 가장자리 근처에 끈이 달려 있고, 밑바닥과 위 가장자리에는 짙은 색을 사용하였는데 더러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4〉는 당대에 그려진 ≪步輦圖≫ 중 토번(오늘날의 西藏)의 사신인 祿東贊의 모습으로 오른쪽 허리에 향낭을 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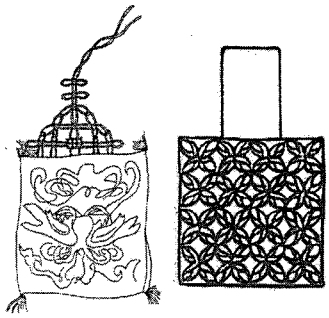
〈그림 2〉 원기둥형 직물향낭
(中華服飾藝術源流, p. 127)

〈그림 3〉 원기둥형 직물향낭
(唐墓壁畵集錦, p. 19)

〈그림 4〉 원기둥형 직물향낭
(중국역대복식, p. 126)

〈그림 5〉 사각형 직물향낭
(沙漠王子遺寶, p. 88)

〈그림 6〉 사각형 직물향낭
(遼代絲綢, p. 244)



〈그림 7〉 사각형 직물향낭(겉, 안)
(中國服飾名物考, p. 694; 中國服飾史, p. 353)

이상에서 원기둥형 향낭은 한대와 당대에 사용되었고, 오른쪽 또는 왼쪽 허리에 편리한대로 착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사각형

사각형은 향낭의 외형이 사각모양으로 된 유형이며, 평면적이다. 이 유형은 漢代, 遼代, 元代의 유물에서 확인된다(그림 5, 6, 7).

〈그림 5〉는 尼雅지역에서 출토된 2~3세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향낭이며, 출토 당시 향낭 안에 향료가 들어 있었으나 향료에 대한 언급은 없다.[20] 향낭은 위 2개의 모서리는 각지고 아래 2개의 모서리는 둥근데, 길이가 11.5㎝이고 너비가 11.2㎝로서 정사각형에 가깝다. 향낭의 네 가장자리를 모두 막는 대신 정면에 별도의 천을 사용하여 기둥모양으로 입구를 만들어 달았다. 기둥모양의 입구로 향료를 넣은 다음 이를 아래로 접어 내리면 향료가 쉽게 흘러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향기의 발산도 어느 정도 조절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향낭의 겉감을 보면 앞면은 '金池鳳'이라는 글자문이 적힌 織錦이 사용되었고 뒷면은 褐이 사용되었으며, 안감은 絹이 사용되었다.

〈그림 6〉은 慶州 白塔에서 출토된 요대의 향낭이며, 출토 당시 향낭 안에 香料가 들어 있었다.[21] 향낭은 장방형으로서 길이가 15㎝이고 너비가 7㎝이며, 덮개의 길이가 5㎝이다. 덮개 양쪽에 구멍이 뚫려 있어 실을 꼬아 만든 끈이 통과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향낭은 갈색이며, 여기에 황색의 격자무늬가 직조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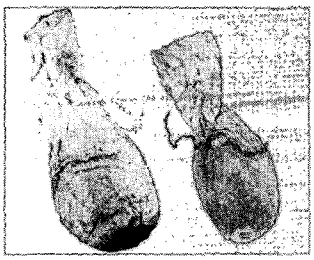
〈그림 7〉은 福建省 福州 黃昇墓에서 출토된 송대의 향낭이다.[22] 향낭은 길이가 5㎝이고 너비가 4.8㎝로서

정사각형에 가깝다. 향낭의 겉감을 보면 앞면은 素羅가 사용되었고 뒷면은 素紗가 사용되었다. 앞면의 중앙에는 원앙 1쌍을 수놓았고 원양의 아래, 위에 연화문을 수놓았으며, 뒷면에는 수를 놓지 않았다. 향낭의 네 모서리에는 술장식을 하였고, 입구에는 갈색 명주실 2줄로 꽃모양의 매듭장식을 하였는데 매듭장식의 길이는 6.7㎝이다. 그런데 향낭 안에는 향료를 담는 별도의 사각형의 향낭 하나가 더 들어 있다. 앞면, 뒷면을 모두 羅로 만들어 양 면을 16개의 볼록하게 나온 꽃송이로 장식했는데 매우 정교하고 섬세하다.

이상에서 사각형의 향낭은 이미 한대에 있었으나 원대에 이르러 매우 장식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한대와 요대에는 도안이 들어간 직물로 향낭을 만들었으나, 원대에는 향낭에 화려하게 수를 놓는 것은 물론이고 꽃모양의 매듭장식과 술장식을 가함으로써 평면적인 향낭을 율동적이고 화려하게 표현하였다. 이로써 향낭이 향을 발산하는 실용품에서 화려한 장식품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원기둥+사각형

원기둥+사각형은 향낭에 腰部가 있는 것으로 요부 이하는 원기둥모양이고, 요부 이상은 사각모양으로 된 가늘고 긴 모양의 유형이며, 입체적이다. 이 유형은 전술한 원기둥형과 사각형의 향낭이 조합된 형태라고 생각되며, 漢代의 유물에서 확인된다(그림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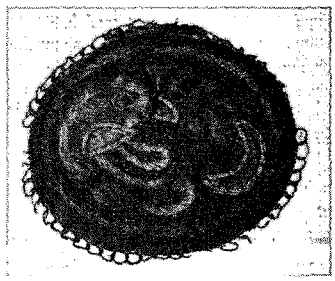


〈그림 8〉 원기둥+사각형 직물향낭
(中國歷代婦女裝飾, p. 282)

〈그림 8〉은 長沙馬王堆1號 漢墓에서 출토된 향낭이며, 향낭은 총 4점이 출토되었는데 출토 당시 각 향낭 안에 모두 향료가 들어 있었다.[23] 1점의 향낭에는 茅香[띠]의 뿌리와 줄기가 들어 있었고, 나머지 3점에는 花椒[산초나무], 茅香, 辛夷[紫木蓮]가 각각 들어 있었다. 4점의 향낭 모두 원기둥+사각형으로서 길이가 가장 긴 것은 50㎝이고 가장 짧은 것은 32.5㎝이며, 향낭의 위 가장자리에 입구가 있고 요부에 絹帶가 달려 있다. 향낭의 겉감을 보면 요부 이하는 素羅와 綺가 사용되었고, 요부 이상은 素絹이 사용되었으며, 4점 모두 자수가 놓여 있다. 안감은 모두 素絹이다.

(4) 원형

원형은 향낭의 외형이 둥근 모양으로 된 유형이며, 평면적이다. 이 유형은 遼代의 유물에서 확인된다(그림 9).



〈그림 9〉 원형 직물향낭(中國歷代織染繡圖錄, p. 2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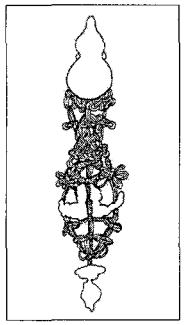
〈그림 9〉는 遼寧省 葉茂臺에서 출토된 요대의 향낭이다.[24] 이는 진갈색의 紗로 만들었으며, 앞면에는 입에 밤을 물고 있는 새를 갈색, 금색, 은색의 실로 화려하게 수놓았고, 가장자리는 사슬모양으로 수놓아 장식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매우 정교하고 장식적이다.

(5) 호로형

호로형은 향낭의 외형이 위는 작고 아래는 크고 허리는 잘록한 표주박모양으로 된 유형이며, 입체적이다. 이 유형은 元代의 유물에서 확인된다(그림 10).

〈그림 10〉은 內蒙古 黑城 유적에서 출토된 원대의 향낭이다.[25] 호로형은 絲絹으로 만들어 위에 당나귀문양을 수놓았다. 주머니 아래에는 남색과 백색으로 꽃모양의 장식매듭을 엮었는데 장식매듭의 길이는 26.5㎝로서 향낭 길이의 두 배가 넘는다. 장식

매듭 또한 호로모양으로 되어 있어 향낭에 율동감을 더해주고 있다.



〈그림 10〉 호로형 직물향낭(中國服飾名物考, p. 696)

(6) 노리개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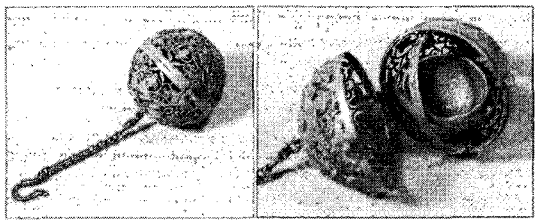
노리개형은 비단에 곱게 수를 놓아 향낭을 만들고 여기에 매듭과 술을 더한 유형이며, 입체적이다. 즉 향낭을 주체로 삼고 띠돈, 매듭, 장식술, 끈목 등을 더하여 전형적인 노리개의 모양으로 만든 향낭 노리개이다. 이 유형은 清代의 유물에서 확인된다(그림 11, 12).

〈그림 11〉은 주체인 향낭의 외형을 주로 둥근 모양으로 만들어 그 안에 여러 가지 식물문과 과일문을 수놓은 향낭노리개이고, 〈그림 12〉는 향낭의 외형을 사람모양, 포도모양 등 특정 사물의 모양으로 만들어 사실적으로 수놓은 향낭노리개이다.

2) 금속향낭

(1) 구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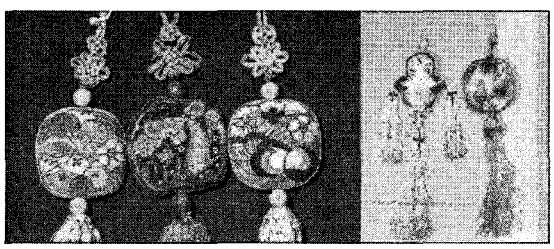
구형은 향낭의 외형이 동그란 공모양으로 된 유형이며, 입체적이다. 구형의 금속향낭을 특별히 香毬라고 한다. 향구는 漢나라와 魏나라 때 처음으로 발견되었으며, 당대의 부녀자들이 향구를 사용하는 것은 상당히 일반적이었고, 송대의 부녀자들 역시 즐겨 사용하였다고 한다.[26] 향구의 모습은 唐代의 유물에서 확인된다(그림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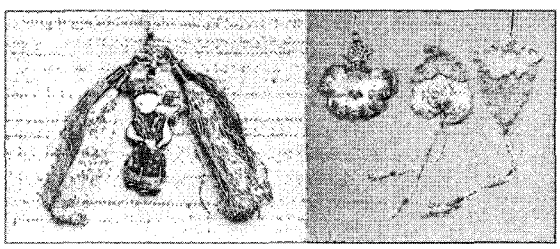
〈그림 13〉 구형 금속향낭(中國歷代婦女裝飾, p. 281)

〈그림 13〉은 西安 沙坡村에서 출토된 유물 총 4점 중의 하나인 銀향구이다.[27] 향구의 허리둘레는 4.8㎝이고 높이는 5㎝정도이다. 향구 전체는 비어있는 상태이고, 중간으로 열 수 있으며, 똑딱단추[鈕]로 연결되어 있다. 향구에는 보리이삭모양의 체인줄이 달려 있고 체인줄 끝에는 작은 갈고리[小鉤]가 달려 있어 어딘가에 걸 수 있게 되어 있다. 향구의 표면은 忍冬花鳥紋이 정교하게 투조되어 있다.

향구는 일종의 소형 향로로서, 향을 발산하는 원리는 다음과 같다. 〈그림 13〉에서 보듯이 향구는 안쪽에 2개의 동심원의 회전축을 가지고 있어서 아무리 움직이더라도 향료를 담는 작은 사발은 항상 수평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므로 향료를 불에 넣어 태운 후 타고 있는 향료를 향구에 담더라도 옷이 타는 일 없이 쉽게 향을 발산할 수 있게



〈그림 11〉 노리개형 직물향낭
(中國歷代織染繡圖錄, p. 229; 中華服飾藝術源流, p. 4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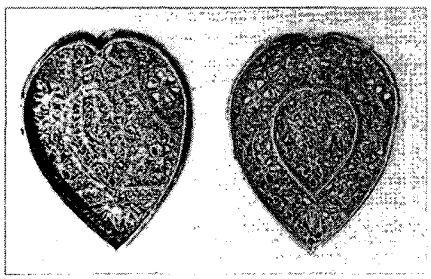


〈그림 12〉 노리개형 직물향낭
(中華服飾藝術源流, p. 460, 461)

되어 있다.[28] 이처럼 향구는 불에 태운 향료를 직접 담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어떤 향낭보다도 향발산효과가 컸으리라 생각된다. 향구의 탁월한 향발산효과에 관해서는 "송대의 부녀자들이 향구를 몸에 지니고 송아지가 이끄는 차를 타고 가면 향연기가 구름 같았고 몇 리를 가도 연기가 사라지지 않았으며, 그 먼지까지 향기로웠다"[29]라는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다.

(2) 심형

심형은 향낭의 외형이 납작한 하트모양으로 된 유형이며, 평면적이다. 이 유형은 宋代의 유물에서 확인된다(그림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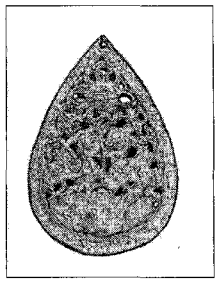
〈그림 14〉 심형 금속향낭(中國歷代婦女裝飾, p. 275)

〈그림 14〉는 福建省 福州 黃昇墓에서 출토된 銀향낭이다.[30] 향낭의 길이는 7.2cm, 너비가 5.5cm이며, 밑부분과 덮개부분에 모두 銀絲로 花모양이 용접되어 있는데, 표면에 구멍이 나 있어 투조기법과 다르지 않다. 향낭의 끝부분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는데 이 구멍은 끈[紐]을 통과시키는데 사용되었다. 출토당시 향낭은 끈이 남아 있는 상태로 가슴 근처에서 발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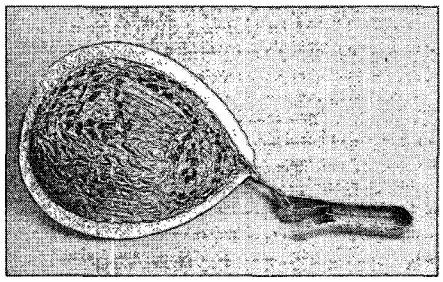
(3) 적형

적형은 향낭의 외형이 동글납작한 떨어지는 물방울모양으로 된 유형이며, 입체적이다. 이 유형은 元代와 明代의 유물에서 확인된다(그림 15, 16).

〈그림 15〉는 江蘇省 吳縣 呂師孟墓에서 출토된 원대의 金향낭이다.[31] 〈그림 16〉은 江西省 南城 益王朱祐槙妃彭氏墓에서 출토된 명대의 金향낭으로



〈그림 15〉 적형 금속향낭(中國歷代婦女裝飾, p. 281)



〈그림 16〉 적형 금속향낭(中國歷代婦女裝飾, p. 281)

길이가 16.5cm, 너비가 7.4cm, 두께가 4.5cm이며, 출토 당시 인골의 발 내측에 놓여 있었으므로 허리에 늘어뜨린 것으로 추측된다.[32] 적형 향낭은 두 장의 금판을 押型하여 떨어지는 물방울 모양으로 만든 것으로 표면에 鴛鴦紋, 飛鳳紋 등이 투조되어 있다.

2. 향낭의 특성

〈표 1, 2〉는 각각 직물향낭과 금속향낭의 특성을 시대별로 요약한 것이다. 〈표 1, 2〉를 중심으로 향낭의 특성을 외적특성과 내적특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외적 특성

(1) 시대별 유형분포

① 직물향낭

〈표 1〉에 의하면 직물향낭의 유형은 원기둥형, 사각형, 원기둥+사각형, 원형, 호로형, 노리개형 등으로 분류된다. 시대별 유형변화는 다음과 같다.

한·당대에는 원기둥형 향낭, 사각형 향낭, 원기둥+사각형 향낭이 존재하였다. 세 유형은 동시에

〈표 1〉 직물향낭의 시대별 특성

시대 / 고찰항목		한대	당대	송대	요대	원대	명대	청대
유형		원기둥형 사각형 원기둥+ 사각형	원기둥형	사각형	원형 사각형	호로형	-	노리개형
장식기법		자수장식 (글자문, 花紋, 點紋)	자수장식(-)	자수장식 (鴛鴦紋, 蓮花紋, 꽃송이문) 매듭장식 술장식	자수장식 (鳥紋, 격자문) 사슬이음수 장식	자수장식(당나 귀문) 매듭장식	-	자수장식 (화문, 사람문, 과일문, 식물문) 매듭장식 술장식
직물	겉감	織錦, 褐, 羅, 綺	-	羅, 紗	紗	絹	羅	絹, 緞
	안감	소견	-	羅	-	-	-	-
착용부위		오른쪽 또는 왼쪽허리, 가슴, 소매	오른쪽 또는 왼쪽허리, 가슴, 소매	오른쪽 또는 왼쪽허리, 가슴, 소매	오른쪽 또는 왼쪽허리, 가슴, 소매	오른쪽 또는 왼쪽허리, 가슴, 소매	오른쪽 또는 왼쪽허리, 가슴, 소매	옷깃, 차이나칼라 두번째 단추, 겨드랑 밑

〈표 2〉 금속향낭의 시대별 특성

시대 / 고찰항목	당대	송대	원대	명대
유형	구형	심형	적형	적형
장식기법	투조장식(忍冬花鳥紋)	용접장식(花紋)	투조장식(鴛鴦紋)	투조장식(飛鳳紋)
재료	銀, 鎏金銀	銀	金	金
착용부위	허리에 차거나, 손에 들거나, 소매 안쪽에 넣음	허리에 차거나, 손에 들거나, 소매 안쪽에 넣음	허리에 차거나, 손에 들거나, 소매 안쪽에 넣음	허리에 차거나, 손에 들거나, 소매 안쪽에 넣음

사용되었으나 형태면에서 볼 때 원기둥형과 사각형의 향낭이 시기적으로 먼저이고, 두 유형으로부터 원기둥+사각형의 향낭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된다. 향낭의 크기는 원기둥형은 길이가 32.5~50㎝이고, 사각형은 길이가 11.5㎝, 너비가 11.2㎝로서 비교적 크다.

송·요대에는 사각형 향낭과 원형 향낭 등 평면적인 향낭이 주로 나타난다. 사각형 향낭은 前 시대의 것이 그대로 계승되는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정방형 외에 장방형도 사용되었다. 사각형 향낭의 네 모서리를 둥글게 하여 원형 향낭을 만든 것이 아닌가 한다. 향낭의 크기는 4.8×5㎝, 7×15㎝ 등으로 前 시대에 비하여 작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원대에는 향낭의 기본모양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위는 작고 아래는 크고 가운데는 잘록한 표주박모양의 향낭, 즉 호로형 향낭이 나타나는데, 호로형 향낭은 前 시기의 향낭과 비교해 볼 때 형태면에서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향낭으로서 매우 장식적이다. 호로형 향낭의 호로모양 부분은 작고 아담한데 반해 매듭장식 부분은 큰 것으로 보아 향낭은 원대에 노리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대에 이르러 향낭은 작고 아담한 향낭이 주체가 되고, 그 외에 띠돈, 매듭, 술, 끈목 등을 갖춘 전형적인 노리개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즉 향낭은 청대에 이르러 향낭노리개로 변화되어 오늘날까지 남아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직물향낭의 경우, 송대, 요대, 원대에

사용되었던 원기둥형, 사각형, 원기둥+사각형, 원형, 호로형 등 여러 가지 모양의 향낭은 청대에 이르러 노리개형 향낭으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한대에 사용된 향낭은 송·요대에 장식이 더해지기 시작하였고, 원대에는 노리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하다가 마침내 청대에 이르러 노리개형 향낭, 즉 향낭노리개로 변화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장식부분을 제외한 향낭 자체만의 크기는 점점 작아져 몸에 지니고 다니기에 알맞은 크기로 변화되었다.

② 금속향낭

〈표 2〉에 의하면 금속향낭의 유형은 구형, 심형, 적형 등으로 분류된다.

금속향낭의 시대별 유형변화를 보면, 당대에는 완전히 동그란 구형[공모양]이고, 송대에는 표면이 납작한 심형[하트모양]이며, 원대와 명대에는 표면이 동글납작한 적형[떨어지는 물방울모양]이다.

그런데 금속향낭의 각 유형은 향을 담는 방법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당대의 공모양의 향낭은 안쪽에 2개의 동심원의 회전축이 있어서 아무리 움직이더라도 향료를 담은 작은 사발이 항상 수평상태를 유지하도록 제작되었으므로 향낭 안에 불에 태운 향료를 담을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송대부터 금속향낭의 외형이 납작하거나 동글납작한 모양으로 변화되었고, 자연히 향낭의 안쪽에 회전축이 없어지게 되면서 향낭 안에 불에 태운 향료를 넣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33] 이처럼 공모양의 향낭에는 불에 태운 향료를 담고, 심형·적형의 향낭에는 그냥 향료를 담았음을 알 수 있는데, 향발산량에 있어서는 불에 태운 향료를 향낭에 담는 전자의 방법이 향 연기를 뿜어 나오게 한다는 점에서 훨씬 효과적이었다고 생각된다.

(2) 장식기법

〈표 1, 2〉를 통해 향낭에 사용된 장식기법을 보면, 직물향낭의 경우 자수장식, 매듭장식, 술장식, 사슬이음수장식 등이 사용되었다. 금속향낭의 경우 주로 투조기법으로 장식되었는데, 화문, 원앙문, 비봉문 등을 정교하게 새겨 넣거나 용접하여 붙임으로써 향낭의 표면에 구멍이 생기게 하였다.

그런데 장식기법면에서 금속향낭은 거의 차이가 없으나 직물향낭은 시대에 따라 차이를 나타낸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대에는 향낭의 표면에 직접 자수를 하거나, 여러 가지 문양이 화려하게 시문된 織錦으로 향낭을 만듦으로써 향낭을 장식하였다. 문양은 화문, 점문, '金池鳳'이라는 글자문 등이 사용되었다.

송대와 요대에도 향낭의 표면에 자수장식을 하였는데 문양은 주로 원앙문, 연화문, 꽃송이문, 조문 등이 사용되었다. 그런데 송·요대에는 향낭의 표면에 자수장식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향낭의 가장자리에 매듭장식, 술장식, 사슬이음수장식 등이 더해지기 시작하였는데 이로써 향낭이 향을 발산하는 실용품에서 장식품으로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된다. 즉 송대의 사각형 향낭을 보면 기본모양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향낭의 입구에는 꽃모양의 매듭장식이, 그리고 네 모서리에는 술장식이 더해졌고, 요대의 원형 향낭은 역시 가장자리에 리드미컬한 사슬이음수가 더해졌다. 송대의 매듭장식과 술장식, 그리고 요대의 가장자리 사슬이음수장식 등은 모두 前시대에는 볼 수 없었던 장식기법들로서 향낭을 보다 아름답고 화려하게 보이게 한다.

원대에는 전체적인 외관면에서 향낭의 크기는 감소하는 반면 매듭장식의 비중은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꽃모양의 매듭장식은 송대의 사각형향낭에 사용된 것 보다 훨씬 화려하고 대담하게 표현되었다. 향낭의 표면에 역시 자수장식을 하였는데 당나귀문양이 사용되었다.

청대에는 이전 시대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던 매듭장식은 단순화되어 직물향낭 위에 형식적으로 사용되는 반면 술장식의 비중은 크게 증가하였다. 술은 색실로 만들어 향낭 아래에 길고 풍성하게 늘어뜨렸는데 1개, 2개, 3개, 5개 등으로 다양하다. 향낭의 표면에 화문, 과일문, 식물문 등을 수놓거나 사람, 포도 등 특정 사물의 모양을 사실적으로 살려 수놓기도 하였다.

이상에서 직물향낭에는 표면의 자수장식, 가장자

리의 매듭장식, 모서리와 향낭 아래의 술장식 등 여러 가지 장식기법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자수장식은 한대부터 청대까지 늘 사용되었던 기법이다. 매듭장식과 술장식은 모두 송·원·청대에 사용되었으나 시대별 차이를 보인다. 즉 매듭장식은 송대와 원대에는 꽃모양으로 화려하고 크게 엮어 향낭의 위 또는 아래 가장자리에 사용되었으나, 청대에는 형식적으로 간소하고 작게 엮어 향낭과 향낭 아래의 술을 연결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반면에 술장식은 송대와 원대에는 짧고 엉성한 모양으로 향낭의 네 모서리에 사용되었으나, 청대에는 길고 풍성하게 변화되어 향낭의 아래를 여러 가지 색상으로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이와같이 직물향낭에는 자수장식이 기본으로 사용되면서 송·원대에는 매듭장식이, 청대에는 술장식이 주된 장식기법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재료

〈표 1, 2〉를 통해 향낭에 사용된 재료를 보면, 직물향낭의 경우 羅, 紗, 綺, 絹, 織錦, 緞 등의 고급 견직물이 주로 사용되었고, 금속향낭의 경우 金, 銀銅, 鎏金銀 등의 금속류가 주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사용된 재료면에서 금속향낭은 거의 차이가 없으나 직물향낭은 전체적인 형태에 따라 차이를 나타낸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기둥형, 사각형, 원기둥+사각형, 원형의 향낭, 즉 한대에서 요대 사이에 사용되었던 주머니형태를 취하는 향낭(그림 2-9)에는 라, 사 등이 사용되었다. 향낭에 라와 사가 사용된 것은 이들 직물들의 조직특성 때문이다. 즉 라와 사는 견직물 중 搦織物에 속하는 것으로 가볍고 얇으며, 조직이 성근 투공직물로서[34] 향냄새를 쉽게 발산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므로 향낭의 재질로 적합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에 호로형, 노리개형의 향낭, 즉 원대와 청대에 사용된 노리개형태를 취하는 향낭(그림 10-12)에는 견, 단 등이 사용되었다. 향낭에 견과 단이 사용된 것 또한 이들 직물들의 조직특성 때문이다. 즉 견은 거칠고 굵은 실을 사용하여 평직으로 제직한 것이고, 단은 두껍고 광택있는 上品의 견직물로 정련한 견사를 사용하여 주자직으로 제직한 것으로서[35] 조직이 촘촘한 특성을 가지므로 정교하고 세밀한 자수장식을 하기에 적합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에서 한대에서 요대 사이, 즉 비교적 앞선 시대에 사용된 주머니형태의 향낭에는 향냄새를 쉽게 발산할 수 있는 라, 사 등의 얇고 가벼운 투공직물을 사용하여 실용적인 측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고, 원대와 청대, 즉 비교적 후대에 사용된 노리개형태의 향낭에는 향냄새를 쉽게 발산하는 것보다 향낭으로 몸을 꾸미는 것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 자수를 놓기에 적합한 견, 단 등의 두껍고 밀도감이 있는 직물을 사용하여 장식적인 측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향낭은 본래 실용성과 장식성을 겸해서 사용되었으나 후대로 갈수록 장식성이 더 비중있게 고려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향낭의 실용적인 측면이 강조된 다른 예들을 보면, 향낭의 앞면은 羅, 뒷면은 紗를 사용하고, 앞면은 織錦, 뒷면은 褐을 사용하는 등 겉으로 드러나는 부위에 더 고급 직물을 사용한 경우도 있고, 〈그림 8〉의 향낭처럼 향료를 담았던 요부이하에는 조직이 성근 羅를 사용하여 향이 원활하게 발산되게 하고, 향료를 담는 것과 상관없는 요부이상에는 조직이 촘촘한 絹을 사용하여 끈으로 조여 묶는데 견뢰도를 높게 한 경우도 있다.

(4) 착용부위

〈표 1, 2〉에 의하면 향낭의 착용부위는 직물향낭과 금속향낭이 유사한 경향을 나타낸다. 즉 향낭을 오른쪽 또는 왼쪽 허리띠에 매달아 늘어뜨리는 것이 일반적이며, 앞가슴 쪽이나 팔꿈치 뒤쪽에 매달기도 하였다.[36] 특히 향구의 경우 고리를 걸어 허리에 늘어뜨리기도 하고,[37] 그냥 손에 쥐고 다니거나 소매 안쪽에 넣기도 하였다.[38]

그런데 착용부위면에서 금속향낭은 거의 차이가 없으나 직물향낭은 유형에 따라 차이를 나타낸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기둥형, 사각형, 원기둥+사각형, 원형, 호로형 등의 향낭은 주로 왼쪽 또는 오른쪽 허리, 앞가슴 쪽, 팔꿈치 뒤쪽에 매달기도 하고 소매 안쪽에 넣기

도 하였다. 향낭은 특히 당·송대에 많이 사용되었는데 당시 부녀자들이 향낭을 차고 있는 회화자료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 여자의 경우 향낭을 주로 앞가슴이나 소매 안쪽에 넣어 보이지 않게 하였고, 남자의 경우 왼쪽 또는 오른쪽 허리에 편리한 대로 매달아 겉으로 드러나게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에 노리개형의 향낭은 옷깃에 걸거나 차이나복의 목 칼라의 2번째 단추에 걸어 늘어뜨렸다. 나이가 든 부인은 겨드랑이 밑에 손수건과 함께 걸기도 하고, 젊은 남녀는 작은 손거울과 함께 걸기도 하였다.[39]

2) 내적 특성

향낭에는 상징성, 사상성, 귀족취향성 등이 내재되어 있다.

첫째, 향낭은 상징적이다. 향낭은 교제하는 젊은 연인들 사이에서 믿음의 징표로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예비신부가 좋은 화축의 뜻으로 예비신랑에게 비단 천으로 만든 향낭을 주거나, 여인이 애인에게 원앙이 새겨져 있는 향낭을 주는 것은 향낭 속에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향기로운 마음을 담아 보내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40] 즉 향낭을 선물하는 것은 애인에 대한 믿음을 상징하였다.

둘째, 향낭은 사상적이다. 즉 향낭에는 음양사상이 내재되어 있다. 음양사상의 관점에서 보면 직선적이고 정적이고 평면적인 속성은 음에 해당하고, 곡선적이고 동적이고 입체적인 속성은 양에 해당한다.

향낭은 전체적인 형태면에서 음양이 조화되어 있다. 즉 〈그림 8〉의 향낭은 요부이하는 입체적인 원기둥모양으로 양에 해당하고 요부이상은 평면적인 사각모양으로 음에 해당하며, 〈그림 5〉의 향낭 역시 아래 가장자리는 곡선으로 양에 해당하고 위 가장자리는 직선으로 음에 해당하므로 전체적인 형태에 음양의 조화가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졌다는 天圓地方의 음양사상이 잘 반영되어 있다.

또한 향낭은 세부 구성면에서도 음양이 조화되어 있다. 즉 〈그림 5〉의 향낭은 본체는 평면적인 사각모양으로 음에 해당하고, 표면의 입구는 입체적인 기둥모양으로 양에 해당하며, 〈그림 7〉의 향낭 역시 본체는 평면적인 사각모양으로 음에 해당하고, 가장자리의 매듭장식과 모서리의 술장식은 입체적인 모양으로 양에 해당하며, 〈그림 9〉의 향낭 역시 본체는 평면적으로 음에 해당하고, 향낭의 가장자리에 사용된 리드미컬한 사슬이음수는 입체적으로 양에 해당하므로 평면적인 음의 요소에 입체적인 양의 요소가 일부 첨가됨으로써 음양이 조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향낭은 귀족취향적이다.

향낭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착용되었으나 유물과 문헌을 통해 볼 때 향낭의 사용자가 왕자, 귀족, 후궁 등 높은 신분층이었던 점, 그리고 고대사회에서 향낭의 내용물인 향료가 바다와 육지를 이용한 실크로드를 통해 수입된 귀한 물건이었다는 점 등으로 보아 향낭은 주로 상류 귀족층에서 사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향낭은 직금, 라, 사, 기 등의 고급 견직물로 만들어 표면에 색사, 금사, 은사 등으로 정교하게 자수장식을 하거나 가장자리에 꽃모양의 매듭장식과 술장식을 하는 등 사용된 직물과 장식기법 면에서도 고급스럽고 화려한 경향을 나타낸다.

Ⅳ. 결언

이상으로 중국에서 사용된 향낭의 개념과 기원을 살펴보고, 유물을 통해 향낭의 유형과 특성을 고찰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고문헌에 표현된 주머니를 지칭하는 용어에는 하낭, 격낭, 하포, 향낭 등이 있다. 하낭, 격낭, 하포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잡다한 물건, 즉 손수건, 바늘, 실, 도장, 화폐 등을 담는 주머니를 말하며, 향낭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건 가운데 특별히 향료를 담는 주머니를 말한다. 향낭을 몸에 지니는 풍습은 周代 이전까지 올라가며, 周代에는 향낭을 용취라고 하였다. 향낭이라는 명칭은 漢·魏시기에 정식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여 清代에 이르러 보편화되었다. 향낭은 香袋, 薰囊, 香荷包, 春囊 등으로도 불리었으며, 금속으로 만든 향낭을

특별히 香毬라고 하였다. 훈낭은 한대에, 향하포와 춘낭은 청대에 사용된 향낭의 별칭이다.

둘째, 향낭의 유형은 사용된 재료에 따라 직물향낭과 금속향낭으로 분류되고, 형태에 따라 다시 직물향낭은 원기둥형, 사각형, 원기둥+사각형, 원형, 호로형, 노리개형 등으로, 금속향낭은 구형[공모양], 심형[하트모양], 적형[떨어지는 물방울모양] 등으로 분류된다. 직물향낭의 경우 한대부터 원대까지 사용된 원기둥형, 사각형, 원기둥+사각형, 원형, 호로형 등의 향낭은 청대에 노리개형 향낭으로 변화되었다. 즉 향낭은 송·요대에 장식이 더해지기 시작하고, 원대에는 노리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하다가 마침내 청대에 향낭노리개로 변화되었다. 금속향낭의 경우 당대에 사용된 구형 향낭은 송대에 표면이 납작한 심형 향낭으로, 원대와 명대에는 표면이 둥글납작한 적형 향낭으로 변화되었다.

셋째, 향낭에 사용된 장식기법을 보면, 직물향낭의 경우 자수장식, 매듭장식, 술장식, 사슬이음수장식이 등이 사용되었고, 금속향낭의 경우 주로 투조장식이 사용되었다. 장식기법면에서 금속향낭은 거의 차이가 없으나 직물향낭은 시대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즉 자수장식은 한대부터 청대까지 향낭의 표면에 항상 사용된 기법이었다. 매듭장식은 송·원대에는 크고 화려하였으나 청대에는 작고 간소하게 변화되었고, 반면에 술장식은 송·원대에는 짧고 빈약하였으나 청대에는 길고 풍성하게 변화되었다. 따라서 직물향낭에는 자수장식이 기본으로 사용되면서 송·원대에는 매듭장식이, 청대에는 술장식이 주된 장식기법으로 사용되었다고 생각된다.

넷째, 향낭에 사용된 재료를 보면, 직물향낭의 경우 羅, 紗, 綺, 絹, 織錦, 緞 등의 고급 견직물이, 금속향낭의 경우 金, 銀 銅, 鎏金銀 등의 금속류가 주로 사용되었다. 사용 재료면에서 금속향낭은 거의 변화가 없으나 직물향낭은 전체적인 형태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즉 한대에서 요대 사이에 사용된 주머니형태의 향낭에는 실용적인 측면이 강조되어 향냄새를 쉽게 발산할 수 있는 라, 사 등의 투공직물이 사용되었고, 원대에서 청대에 사용된 노리개형태의 향낭에는 향낭으로 몸을 꾸미는 장식적인 측면이 강조되어 자수를 놓기 적합한 견, 단 등의 밀도감이 있는 직물이 사용되었다.

다섯째, 향낭의 착용부위를 보면, 직물향낭과 금속향낭이 유사한 경향을 나타낸다. 향낭은 일반적으로 허리띠에 매달아 늘어뜨렸는데 왼쪽 또는 오른쪽 허리에 편한 대로 착용하였다. 또한 앞가슴 쪽이나 팔꿈치 뒤쪽에 매달기도 하고, 그냥 손에 쥐고 다니거나 소매 안쪽에 넣기도 하였다. 다만, 직물향낭 중 노리개형 향낭은 옷깃에 걸거나 차이나복의 목 칼라 2번째 단추에 걸어 늘어뜨렸다.

여섯째, 향낭에는 상징성, 사상성, 귀족취향성 등이 내재되어 있다. 먼저 향낭을 선물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믿음을 상징한다. 다음으로 향낭에는 음양사상이 내재되어 있다. 즉 향낭은 전체적인 형태면에서 음의 속성인 평면적인 모양과 양의 속성인 입체적인 모양이 결합되어 있고, 세부 구성면에서도 음의 속성인 평면적인 향낭에 양의 속성인 입체적인 기둥모양의 입구, 술장식, 매듭장식, 사슬이음수장식 등이 일부 첨가됨으로써 음양이 조화되어 있다. 끝으로 향낭은 왕자, 귀족, 후궁 등 비교적 높은 신분층에서 고급견직물로 만들어 자수, 매듭, 술 등으로 장식하여 사용한 점과 향낭의 내용물인 향료 자체가 당시 고급 수입품이었던 점으로 보아 다소 귀족취향적인 경향을 나타낸다.

참고문헌

1) 周汛·高春明 (1988). 中國歷代婦女裝飾. 上海學林出版社, p. 270.
2) 권영숙 (2001). 月精寺八角九層石塔發見 繡羅香盒囊小考. 전통복식, 3, 한국전통복식연구소, p. 2.
3) 온양민속박물관편 (1991). 1302年 阿彌陀佛腹藏物의 調査硏究. pp. 131-132.
4) 藤本勝次·山田憲太郎·三杉隆敏 (1982). 海のシルクロード. 大阪書籍, p. 85
5) 周汛·高春明 (1996). 上海辭書出版社, p. 461, 479.
6) 앞책.
7) 趙超 (2004). 云想衣裳. 四川人民出版社, p. 92.
8) 周汛·高春明 (1996). 앞책, p. 461.
9) 周汛·高春明 (1988). 앞책, p. 273.
10) 周汛·高春明 (1988). 앞책, p. 273; 周汛·高春明 (1996). 앞책, p. 461.
11) 周汛·高春明 (1996). 앞책, p. 479.
12) 周汛·高春明 (1988). 앞책, p. 274.

13) 高春明 (2001). 中國服飾名物考. 上海文化出版社, p. 697.
14) 周汛·高春明 (1988). 앞책, p. 274; 周汛·高春明 (1996). 앞책, p. 479, 도103.
15) ≪禮記≫ 권27「男女未冠笄者...皆佩容臭」
16) 周汛·高春明 (1996). 앞책, p. 479.
17) 정혜경 (1998). 심의. 경남대학교출판부, pp. 19-20.
18) 黃能馥·陳娟娟 (1994). 中華服飾藝術源流. 高等教育出版社, p. 127.
19) 群馬縣立歷史博物館 (1989). 唐墓壁畵集錦. p. 126.
20) 趙丰·干志勇 (2000). 沙漠王子遺寶. 藝紗堂/服飾出版(香港), p. 18, p. 88.
21) 趙豐(2004). 遼代絲綢. 沐文堂美術出版社有限公司(香港), p. 244.
22) 周汛·高春明 (1996). 앞책, p. 461; 黃能馥·陳娟娟 (2004). 中國服飾史. 上海人民出版社, 앞책, p. 352; 高春明 (2001). 앞책, p. 694.
23) 周汛·高春明 (1988). 앞책, p. 274; 趙超 (2004). 앞책, pp. 91-92; 高春明 (2001). 앞책, p. 694.
24) 高漢玉 (1986). 中國歷代織染繡圖錄. 香港:商務印書館香港分館. 上海科學技術出版社, p. 240.
25) 高春明 (2001). 앞책, p. 696.
26) 周汛·高春明 (1988). 앞책, p. 274; 周汛·高春明 (1996). 앞책, p. 479.
27) 周汛·高春明 (1996). 앞책, p. 479.
28) 周汛·高春明 (1988). 앞책, p. 274; 周汛·高春明 (1996). 앞책, p. 479.
29) 周汛·高春明 (1996). 앞책, pp. 479-480.
30) 周汛·高春明 (1988). 앞책, pp. 274-275; 黃能馥·陳娟娟 (2004). 앞책, p. 354.
31) 周汛·高春明 (1988). 앞책, p. 281.
32) 앞책, pp. 274-275.
33) 앞책, p. 275.
34) 張賢珠 (1993). 20世紀 前半期의 韓國 絹織物 硏究. 부산대학교석사학위논문, p. 43, p. 52.
35) 張賢珠 (1993). 앞논문. p. 12, p. 33.
36) 周汛·高春明 (1996), 앞책, p. 461.
37) 周汛·高春明 (1988). 앞책, p. 274.
38) 周汛·高春明 (1996). 앞책, p. 479.
39) 黃能馥·陳娟娟 (2004). 앞책, p. 582.
40) 周汛·高春明 (1996). 앞책, p. 462.